



NEWS LETTER

2019년 11월 18일 Vol. 357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한방 난임 치료 임상연구 결과 발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지난 14일, ‘한약(온경탕과 배란 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를 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5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4년간 보건산업진흥원 으로부터 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실시된 연구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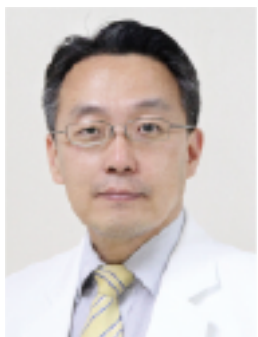
임상연구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의 원인 불명의 난임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참여자 90명 중 13명이 임신했고, 이 중 7명이 12주 이상 임신 유지 및 출산을 했으며, 임상적 임신율은 14.44%, 착상률 14.44%, 임신유지율 7.78%, 생 아출산율 7.78%였다. 중대 이상반응 및 기형 출산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병행해 난임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 효과와 안전성·경제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키 위한 과학적 증거를 확보코자 연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아시아인공관절학회서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는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 인공관절학회 학술대회(ASIA 2019)’에 참석해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10개국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에서 참여해 인공관절에 대한 최신정보와 다양한 주제의 연구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안 교수의 논문은 슬관절 인공관절 분야의 구연 주제 중 하나로 선정돼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서 슬개골 위치에 따른 내외측 연부조직 균형 변화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치환물의 장기간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내외측 연부조직 균형 조절이 수술 중 슬개골 위치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이는 수술자들에게 보다 세밀한 슬관절 인공관절 수술법을 제시한 연구이다.

차 의과학대학교 약대와 ‘실무실습교육’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8일 차 의과학대학교 약학과와 실무실습 교육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약학교육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우수한 전문 직능인으로 약사양성을 위해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해원 병원장과 차 의과학대학 서영거 학장, 최현진 학과장, 김옥선 약제팀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약제팀에서는 2014년부터 본교 약학대학 6학년을 대상으로 병원 실무실습교육을 실시해왔으며, 2020년부터 타 대학에도 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경과 윤호상 전공의, 2019 신경과 추계 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윤호상 전공의(3년차)가 지난 11월 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9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윤호상 전공의는 신경과 김남희 교수 지도로 OCT 검사를 이용한 초기 NMO(시신경척수염)와 MS(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적 구분을 주제로, 시신경척수염이 더 심한 시신경염을 일으키는 점에 착안해 진단적인 가치와 기준에 대한 포스터를 발표했다.

윤호상 전공의는 “좋은 상을 수상할 수 있게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연구 및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